

논 술 고 사 문제지

<인문계/사회과학계/커뮤니케이션학부>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입.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답안 이외의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문제 1: 30%, 500~600자>

제시문 [가], [나], [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간의 윤리적 삶’에 대해 논술하라.

<문제 2: 30%, 500~600자>

<문제 1>의 답변에 입각해서, 제시문 [라], [마], [바]를 비판하라.

[가] 분석치료가 ‘그림자’를 의식화하는 한, 일종의 분열과 대극긴장을 조성하게 된다. 긴장을 느끼는 쪽에서 통합을 통하여 타협을 꾀한다. 이 타협의 중개는 상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대극 사이의 대립은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거나 그것으로 인해 심각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된다. 논리학의 ‘배중원리’^{*}가 입증되며, 사람들은 아무런 해답도 알지 못한다. ...중략... 과학적 인식은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럼으로써 과학은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다. 과학은 정신의 실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정신을 수단으로 사용해야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나, 데몬, 또는 신이라는 명칭의 타당성을 반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체험과 결부된 생소함이 분명히 느껴진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미지의 것, 생소한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 꿈이나 어떤 착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들을 마나, 데몬, 신, 또는 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작용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 카를 융, 『기억 꿈 사상』

* 배중원리: 형식논리학에서 두 개의 모순된 개념 사이에는 제 삼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원리

[나] 루소는 그의 교육소설 『에밀』의 첫 페이지에서 자연은 인간을 착하게 창조하였지만, 인간은 인간의 손에 의해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기술하였다. 이런 생각을 한 루소는 또한 인간 교육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역설을 스스로 보았다. 인간의 손에 인간을 맡겨야 하는 그 필연성은 동시에 인간의 손에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과 일치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교육은 자연에 의한 인간 교육의 대리이기도 하다. 자연은 선이고 인간은 악이지만, 선한 자연에 의한 교육은 악한 인간에 의한 교육에 의하여 보충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교육은 자연의 보충이자 대리적 기능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에 의한 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이 지고의 선이라 하더라도 자연 상태로 인간을 방임하면, 인간은 인간이 되지 못한다.

— 김형효, 『노장사상의 해체적 독법』

[다] 악이 없다면 선은 어떻게 될까? 악이 나타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선하려고 애쓸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선을 향한 인간의 의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지건 끊임없이 악에 대항하도록 인간에게 부담을 지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항이 허깨비놀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악을 키우도록 부추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악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며, 악은 인간에게 도덕체계와 법체계를 갖출 동기를 부여한다. 만약 악이 그토록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항상 다른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다면, 어쩌면 존재하는 모든 직업들이 필요 없어질지 모른다는 생각도 한번쯤 해야 할 것이다.

— 프란츠 부케티츠, 『왜 우리는 악에 끌리는가』

[라] 이 세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조차도 제한없이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의지’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름 붙일 수 있는 지성, 재치, 판단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마음의 재능, 혹은 용기, 결심, 목적한 것에 대한 끈기와 같은 우리 성향의 성질들은 여러 면에서 의심할 바 없이 선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연의 선물들을 사용해야하는,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 특성에 ‘성격’이라는 용어를 붙이게 하는, 그 의지가 선하지 않을 때, 그런 재능들과 성질들은 악하고 해로울 수 있다. ...중략... 앞에서 말한 몇 가지 성질들은 이 선한 의지 자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선한 의지가 하는 일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질들이 무조건적인 내적 가치를 갖는 것은 결코 아니며, 항상 선한 의지를 전제한다. 이 선한 의지는, 그런 성질들이 정당하게 갖는 존경마저도 제한하며, 그런 성질들을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칸트, 『도덕형이상학의 기초』

[마] 안희가 인(仁: ‘이상적 덕’)을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에 인(仁)이 있다. 어떤 사람이 단 하루만이라도 자기를 억제해 인(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인(仁)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안연이 물었다. “(인(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예(禮)에 어긋나는 것은 보지도 말고, 예(禮)에 어긋나는 것은 듣지도 말고, 예(禮)에 어긋나는 것은 말하지도 말며, 예(禮)에 어긋나는 것은 행하지도 말라.”고 하였다.

— 공자, 『논어』

[바] 현대인은 길고도 끊임없는 진화적 투쟁의 결과물이다. 이 투쟁에서 일부는 식량을 구하는 데 성공하고 번식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생존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한다. 반면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의 유전자는 집단에서 소멸된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이기주의자는,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생존하도록 돕는 이타주의자들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다. 이기주의와 같은 특성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기주의자들의 수는 늘어날 것이며 이타주의자들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사실 진화는 이미 대단히 긴 시간을 지나왔으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타주의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 피터 싱어,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문제 3: 40%, 1,000~1,200자>

동서문화의 차이와 융합에 관한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입장을 간단히 기술하고, [가]의 입장에서 [나], [다], [라]의 입장을 각각 비판하라.

[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분리와 단절은 정치·법률이 처리하는 일상생활과 종교·이데올로기·문화전통이 처리하는 정신세계의 일정한 거리두기이며 분리이다. 따라서 이는 후자가 전자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지 못하게 하여 개체로 하여금 후자에 대해 더욱 더 많은 선택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어떤 이가 이러한 현대 사회적 공중도덕을 자신의 신앙 이데올로기 또는 종교적·사적 도덕으로 삼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념을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양자는 각자 자기의 주장대로 하게 하여 각자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서로 간섭하여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아 분리할 수 없게 해서는 안 된다. ...중략... 현대의 사회적 도덕은 어떠한 교의나 주의를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모든 개체가 기본적인 공공의 생활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어떠한 가치·의의·주의·교조를 선택하고 믿을 자유, 즉 현대 사회생활에서 개체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 리쩌허우, 『역사본체론』

[나] 그러나 그 근원을 올라가면 본지(『신청년』) 동인들은 본래 죄가 없다. 단지 저 데모크라시와 사이언스 두 분 선생을 옹호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이 몇 가지 하늘에까지 닿을 큰 죄를 범한 것이다. 저 ‘데’ 선생을 옹호하려면 곧 공자교와 예법과 정절, 구윤리, 구정치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고, 저 ‘사이’ 선생을 옹호하려면 곧 구예술과 구종교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데’ 선생을 옹호하고 또 ‘사이’ 선생을 옹호하려면 곧 국수주의와 구문학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본지가 ‘데’ 선생과 ‘사이’ 선생 두 분을 옹호한 것 외에 또 다른 죄목이 있겠는가?

— 천두슈, 『신청년』

[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우리 동양 문화는 그 자체가 모두 어느 것도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으며 서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좋지 않고 맞지 않은 것,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점은 모두 순서가 어수선하고 성숙이 너무 이르며 시의에 맞지 않았다는 데 있다. ...중략... 오늘날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의 실패는 그 자체가 좋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다만 시의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류 문화의 초기에는 모두 첫 번째 길을 걷기 마련이고, 중국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끝까지 걷지도 않고 중도에 방향을 틀어 두 번째 길로 나아갔다. 나중에 걸어야 할 길을 미리 걸어서 인류 문화의 조숙(早熟)이 된 것이다.

— 량수밍, 『동서문화와 철학』

[라] 민주정치가 하나의 정치제도라면 그것은 당연히 보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양이든 중국이든 어디서나 채용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민주’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가지고 서양화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근대화 혹은 현대화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유가(儒家)는 자각적으로 민족의 생명을 수호하려 한다. 따라서 어떠한 외래문화나 종교에 의해 민족의 생명이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지만 유가는 ‘민주’와 ‘과학’을 진심으로 요구한다. 우리들은 심지어 민주와 과학은 바로 유가의 ‘내재적 요구’ 혹은 ‘내재적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지본심(良知本心)*은 도덕가치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 과학의 가치를 긍정하며, 그것의 완성과 성취를 요구한다. 하물며 유가의 외왕지학(外王之學)** 또한 민주정치와 과학기술을 더해야만 비로소 진일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 차이런허우, 『유가와 현대화』

* 양지본심: 무한하고 신적인 도덕적 마음, 양심

** 외왕지학: 타인을 다스리는 학문